

###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리...신정아 '가짜학위' 파문...오승윤 위작 유통

## 미술계 '불신의 늪' 빠졌다

올초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비리에 이어 신정아 전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의 '가짜 학위' 파문 등 최근 미술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어 지역 미술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정아씨의 가짜학위 파문으로 비엔날레 재단 이사들이 총사퇴한 데다 지역 미술 시장에 오승윤씨의 위작이 나뉘는 실이 서울지역에 확산되자 "더 이상 오해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한다"는 미술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들어 지역 미술계는 1월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 선정 비리사건에 지역 미술인 상당수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예향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예술적 자존상에 상처를 입었다.

신정아 파문은 지역 미술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비엔날레 재단의 감독 자질 검증 시스템의 부재는 물론 재단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냄으로써 예향 광주의 위상에 상처를 남겼다.

여기에서 최근 서울 인사동 화랑가에는 오승윤씨의 위작이 떠돌고 있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는 등 그나마 침체된 미술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오 화백의 유족들은 최근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국미술품 감정협회로부터 작품 7점을 감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품수 시리즈"를 흥내낸 이 작품들은 유족들의 감정결과 모두 한 사람이 제작한 조잡한 가짜였다.

오승윤씨의 딸 오수경씨(38)는 "아버지의 작품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면 속아 넘어가기 쉬운 위작들이었다"며 "더

큰 문제는 이 작품들이 광주에서 유통 공표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나인갤러리 양승찬 관장은 "비엔날레 파문으로 가뜰이나 미술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오승윤 위작의 공표로 지목된다는 것은 미술시장의 약체"며 "오 선생의 작품의 경우 광주지역에서 위작이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

다"고 말했다.

정준모 고양문화재단 아랍&어울림아트갤러리 전시감독은 "위작을 구입한 피해자들이 지역 미술계 전체를 불신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가 최영훈씨는 "일련의 사건들이 광주 미술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며 "일부 미술인들의 문제를 지역 미술계의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하기 보다는 지역 미술의 발전을 위한 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술계의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 화랑가에는 지난 2003년 12월에 폐지됐던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도 부활될 수 있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신사임당 이미지 식민통치용 조작”

김수진 연세대 교수 주장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독일은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다. 독일제국의 병사를 길러내기 위한 군국의 어머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수입한 제국주의 일본 역시 '군국의 어머니'를 강조했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 여성은 병력과 노동력을 낳고 기를 뿐 아니라 전쟁에 내보내는 역할을 떠맡았다.

식민지 조선에도 '군국의 어머니상'은 필요했다. 조선의 역사를 통틀어 부합하는 사례를 찾아낸 친일 지식인은 적합한 인물을 발견한다. 신사임당이다.

연세대 김수진 교수는 연세대 국학연구원 '분단 체제하 남북한의 사회변동과 민족통일의 전망'을 주제로 19~20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신사임당은 식민지 시기 '군국의 어머니상'으로 조망됐으며 근대화가 진행된 1960~1970년대 식민지 시기와 유사한 상징조작이 일어났음을 밝힐 예정이다.

김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 '전통의 창안과 여성의 국민화 : 신사임당을 중심으로'에서 1900년대 이후 신사임당에 관한 논의를 크게 3가지 국면으로 나눠 살폈다.

1900~1930년대 초반 신사임당은 애국계몽운동과 민족주의적 역사학과 함께 주목받았다. 국권 박탈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와 민족의 영웅이 필요했고 신사임당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물이 다수 출간됐다.

이 당시 신사임당 전기의 내용은 '경서와 사서에 깊은 학식을 지니고 시·서·화에 능한 여성으로 남편을 계도하고 울곡 같은 대성현을 낳고 길렀다'로 요약된다.

김 교수는 "그러나 신사임당은 총동원체제 시기 황민(皇民)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지식인에 의해 일본식 '총후부인'이자 '군국의 어머니'로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에게 자식을 국가에 바친다는 것, 국민으로서 자각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낯선 것이었다"며 "황민화의 길에 동참한 지식인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군국의 어머니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의 재해석이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신사임당은 황민의 자질이 과거 조선에도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역사적 인물로 선택됐으며 친일지식인에 의해 '군국의 어머니'로 가공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그 장면 그 음악 다시 듣기

### 음악감상실 베토벤 '영화속 고전음악' 강좌

재민절이었던 지난 17일 음악감상실 베토벤.

줄리엣 비노쉬가 주연한 영화 '폰네프의 연인' 한 장면이 흐르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사랑하는 청춘 남녀의 환희에 찬 모습을 더욱 실감나게 전해준다.

'위대한 독재자'의 주인공 찰리 채플린이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에 맞춰 면도를 하는 장면은 입가에 절로 미소를 짓게 한다.

음악감상실 베토벤이 5주 과정으로 준비한 '영화와 음악의 만남'(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첫 번째 시간에 참여한 20여명은 이날 아름다운 음악과 그 음악이 흐르는 영화의 한 장면을 함께 감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영화 속의 고전 음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영화 '피아니스트'에 삽입된 쇼팽의 '발라드 1번', '지옥의 묵시록'에 삽입된 바그너의 '발퀴레', '파리넬리'에 삽입된 헨델의 '울게 하소서' 등 17편의 주옥같은 클래식 음악을 영화 속 장면과 함께 감상했다.

24일 진행되는 '영화 속의 아름다운 장면과 음악'에서는 '세가지 색-블루' '와호장룡', '시네마 천국' '남과 여' 등의 삽입 음악을 감상하며 31일 열리는 '영화 속 풍



17일 음악감상실 베토벤에서 열린 '영화와 음악의 만남'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음악을 감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5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진행된다.

경-비행·이국풍'에서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잉글리시 페이션트' 등의 영화음악을 만난다.

8월 7일에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를 비롯, 모차르트·탈러 등 유명 작곡가의 음악이 등장하는 영화 '가면 속의 아리아'를 감상하며, 8월14일에는 '엘비라 마디간' '샤인' '파리넬리' 등 클래식 음악이 삽입된 영화 가운데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 한편을 집중 감상할 계획.

이날 행사가 가능했던 건 직접 자료를 준비하고 알기 쉬운 해설을 곁들여 준 안철(광주 금호고 교사)씨 덕분이다. CD 5천장, DVD 1천500장을 보유하고 있는 클

래식 마니아인 안씨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직접 편집 작업을 진행, 자료를 준비했다.

안 씨는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클래식과 쉽게 친근해질 수 있도록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참가자들의 호응이 이어지면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아이템으로 베토벤 뿐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감상회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음악감상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222-84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안영찬 작 'REDINMATRIPIA'

### 사진작가 그룹 '아이콘' 9번째 사진전

내달 1일까지 롯데화랑

사진을 매체로 작업하는 작가들의 모임인 그룹 아이콘이 다음달 1일까지 롯데화랑에서 9번째 전시회를 갖는다.

'landscap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이빛나라, 안영찬, 이정록, 장아로미, 장호현, 최은 등 6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성형'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해온 장아로미는 이번 전시에서 전신 성형의 샘플

로 삼은 인형과 버섯으로 가상의 풍경을 연출,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한 '판타스틱 플라스틱 머신'을 내놓았으며 이정록은 들녘, 숲, 갯벌에 깎을 속 자신의 이미지를 넣어 신비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지난 2005년 결성된 아이콘은 실험적인 작업을 모색하는 젊은 그룹으로 불안한 미래에 허덕이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준다. 문의 062-221-180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순천시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

순천시가 26일부터 8월7일까지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운영한다.

26~27일 순천 동천수변생태 공원(구 비행장)에서는 전남도립극단 연주, 금관 5중주, 색소폰 연주, 댄스 공연이 펼쳐

지며 8월2일과 3일 동천보트장에서는 퓨전국악과 연극, 합창 공연이 펼쳐진다.

또 6일과 7일 상사섬에서는 태권무와 연극 상과 공연을 갖는다. 문의 061-749-35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상영 10대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련던약국사거리 ♥에매1544-0600

1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체) 최고급관

2관 다이하드 4.0 (디지탈/기24)

3관 해부학교실 (15세) / 다이하드 4.0 (12세)

4관 트랜스포머 (12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삼 (15세)

7관 뉴욕남자 파리여자 (18세)

8관 다이하드 4.0 (12세)

9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체)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해리포터 (전체)

2관 택시4 (12세)

3관 슈렉3 (전체) / 검은집 (18세)

4관 오션스13 (12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밀양 (15세)

7관 다이하드4 (12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 자취생 동시 주차장 20대 <3시간 무료> \*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할도시영 영화시영 \*에매-www.joyabc.com/1588-7941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미지 사이) 해남점 (무역화관뒷편)

1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체/전체) / 삼 (15세)

2관 <리얼이전용관>하울의 움직이는 성 (12세)

3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체)

4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체)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트랜스포머 (12세)

7관 다이하드 4.0 (12세)

8관 해부학교실 (15세)

9관 다이하드 4.0 (12세)

10관 다이하드 4.0 (12세)

\* 오늘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해남점 (107번) 점권리 상영중 상무점엔진 배반 (1번 or 2번) -1번 or 2번 -1번

즐거움이 가득 \*www.mc12.co.kr/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트랜스포머 (12세)

3관 해리포터 (전체)

4관 다이하드 4 (12세)

5관 해리포터 (전체)

6관 해리포터 (전체)

7관 해부학교실 (15세)

8관 삼 (15세)

9관 다이하드 4 (12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극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타임스퀘어 최인민을 위한 전용영구 미션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다이하드 4.0 (12세)

2관 해리포터5 (전체)

3관 트랜스포머 (12세)

4관 해리포터5 (전체)

5관 다이하드 4.0 (12세)

6관 해부학교실 (15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혼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